

충남지역 삶의 질 : 현황과 과제

이제는 삶의 질, 충남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노력 시급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까?'

견실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새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행복’이나 ‘삶의 질’은 그 성격이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 기관들은 독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별로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OECD Better Life Index 가 있다. 이 지수는 기존 거시경제 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별로 주거, 소득, 고용/임금, 사회적 관계, 교육, 환경, 생활만족도, 치안 등 총 11개부문 24개 지표를 합성하여 각 국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한다. 201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회원국과 2개의 비회원국 총 36개국 중 25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생활만족도, 소득, 주거 등의 부문에서는 중위권 수준이나 일-생활 균형, 사회관계, 건강, 환경 등의 부문은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조한 수준이다.

'충남, 중상위권의 삶의 질을 기록하였으나 지역/부문별 양극화 상존'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2014년 6월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지역별로 상이한 삶의 질을 가늠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지역 별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발표되고 있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이하 ‘삶의 질 지수’)는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 생활환경 등 총 7개 부문 24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측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이 지수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측정대상 지역이 국내 139개 시·군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충남 기초 지자체들이 모두 측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지역별로 상이한 삶의 질을 살펴보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 지수에 따르면, 2013년 충남은

조사대상 8개 광역자치도 중에 중상위권의 삶의 질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보건복지 및 교육 환경이 다른 광역자치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경제와 환경부문은 중하위권, 문화여가나 지역사회 부문은 하위권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이 지수에 따르면 충남의 기초지자체 별로 삶의 질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은 삶의 질 지수 구성부문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포함되며 전체 139개 시·군 중 12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삶의 질을 기록한 반면, 하위 50%에 포함되는 충남 내 시·군도 6개나 된다. 더욱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큰 편차가 상존한다. 조사대상 전체 139개 시·군 중 부문별 지표 기준으로 100위권 밖(약 하위 25%)에 포함된 충남 시·군의 개수는 지역경제(7개), 환경(7개), 지역사회(7개), 문화여가(4개), 교육(4개), 보건복지(3개), 생활환경(3개)이다. 즉, 충남지역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중상위권 수준이나, 지역별/부문별로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민 삶의 질 파악과 제고를 위해 지역/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 필요

앞에서 살펴본, ‘삶의 질 지수’는 도민들의 행복감을 가늠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나 이 지수가 도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또는 행복을 왜곡 없이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직시하고 도민들의 행복감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도민들의 행복감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부문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높아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해당부문을 개선할 경우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이외 여러 부문이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적 상황에 알맞은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확충, 고령화대비와 인구유입 정책, 재정자립도의 개선, 낙후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보급률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 및 사업 등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전반적인 충남 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저자 _ 공주대학교 황상연



함께하는 행복 만들기

지역별 삶의 질 차이를 줄여보아요



★ 삶의 질은 어떻게 측정할까?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지역사회, 환경 총 7개 부문 24개 변수로 구성된 조사결과로 주관적인 삶의 질을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생활 조건을 측정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이하 삶의 질 지수)로 살펴봄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대상 : 2013년 전국 54개 시단위, 85개 군단위

★ 남의 삶의 질 지수 알아보기(광역자치도별 비교)



★ 충남의 지역별/부문별 삶의 질 지수의 차이가 심해요.

	삶의 질 지수	보건복지	교육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	지역사회
상위 25%	천안 아산	천안 공주 논산 계룡 청양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천안 계룡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천안 공주 아산	홍성 금산 부여	천안 아산 계룡
상위 50%	공주 보령 계룡 금산 홍성 당진 서산	보령 아산 부여 금산 서천 홍성	공주 보령 홍성 예산 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금산 태안	서천 홍성 예산 당진 금산	서천 청양 예산	공주 서산 당진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그외 지역

★ 함께 행복해 지는 충남 만들기

